

【특집】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사의 주요 흐름

전 현 상*

【주제분류】 서양고대철학

【주요어】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페리파토스, 신플라톤주의, 라틴 전통

【요약문】 본 논문은 B.C. 1세기부터 A.D. 13세기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관한 주석 활동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의 역사는 안드로니코스의 편집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어, A.D. 3세기까지는 주로 보에토스, 아스파시오스, 알렉산드로스 등 페리파토스 학파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작업을 주도한 것은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은 포르퀴리오스로부터 시작되었고, 쉬리아노스, 프로클로스 등의 아테네 학파와 암모니오스, 필리포노스, 심플리키오스 등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나뉘어 그 각각에서 고유한 특징의 주석서들을 산출했다. 신플라톤주의 주석서들은 점차로 조직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갔으며, 그것에 상응하는 체계적 구성을 보이게 된다. 그 주석서들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적 독창성이 구현되는 토양이었고, 주석 작업은 종종 영적인 수련의 차원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의 라틴 전통은 보에티우스로부터 시작되지만, 12세기부터 아랍어로 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과 그것들에 대한 주석서들이 대규모로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아랍 전통의 영향은 아퀴나스의 주석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I. B.C. 1세기~A.D. 3세기의 페리파토스 학파 주석 전통

1.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Andronikos)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 중의 어떤 사건도 그의 주요 학적 저작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겪은 - 혹은 겪었다고 전해지는 - 우여곡절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유명한 스토리에 따르면¹⁾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후 그의 저작들은 그의 후계자였던 테오프라스토스에게, 그리고 테오프라스토스의 사후에는 테오프라스토스의 저작들과 함께 다시 벨레오스에게 넘겨졌다고 한다. 벨레오스에 의해 이 저작들은 그의 고향인 소아시아의 스키타스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후 그 저작들은 다시 그의 후계자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철학자들이 아니었던 그들은 그것들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었다. 수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탈리드 왕조의 왕들이 페르가모스의 도서관을 위해 책을 거두어들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은 지하에 일종의 통로를 만들고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그곳에 감추었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곰팡이와 벌레에 의해 훼손되었다.” 이런 상태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저작들은 후에 서적 애호가였던 아펠리콘에게 비싼 값에 팔려 아테네로 옮겨지게 된다. 아펠리콘은 손상된 수고들을 새롭게 옮겨 적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오류로 점철되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아테네에 머문 기간은 길지 못했다. B.C. 86년에 아테네를 함락시킨

1) 이 스토리의 주된 전거는 스트라본(strabōn)(Geographica XIII I.54)과 플루타르코스(plutarchos)(Vita Sullae 26)이다.

술라가 아펠리콘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로마로 가져 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당신 유명한 문법학자였던 튀란니온(Tyranniōn)에게 맡겨졌다가 최종적으로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Andronikos)의 작업을 통해 비로소 정리된 모습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 극적인 스토리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인건,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적 저작들이 오랫동안 무관심 – 혹은 그것에 대한 무지 –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상황이 안드로니코스의 전집본 출판과 함께 반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전집본의 등장은 사실상 이후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논의의 방식 자체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이 편집본의 내용에 대해 논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논의의 주된 방식은 그 저작들에 대해 주석을 쓰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안드로니코스의 전집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에 그의 판단과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미미하다. 포르퓌리오스(Porphyrrios)는 자신이 플로티노스(Plotinos)의 『엔네아데스』를 편집함에 있어서 안드로니코스를 모방했다고 말하면서,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저술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관련된 자료들은 하나로 모았다”²⁾라고 말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단서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인물에 의해 아랍어로 쓰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이다. 여기에는 안드로니코스로부터 유래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저작들의 제목과 권수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반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목록은 통상 1~3권 정도의 보다 짧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제목들도 상당부분 현존하는 저작들과 다르다.³⁾ 후자의 목록이 안드로니코스의 작업을 거치

2) *Vita Plotini*, 4-6.

기 전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목록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안드로니코스가 기존의 자료들에 어떤 식으로 손을 댄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안드로니코스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을 편집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작업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책도 저술했다고 한다.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알려지지 않지만, 그것은 적어도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상당한 분량의 책이었으며, 그 중 적어도 세 권이 (진작과 위작을 망라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의 목록에 할애되었다. 그것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언, 편지들, 그리고 그의 전기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드로니코스는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의 진위 여부, 내적 구성,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체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그것들이 학습되어야 할 순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그 첫 번째 단계로 놓은 것이 바로 논리학이었다. 이 보고를 신뢰한다면, 논리학을 다른 모든 학문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전통은 이미 안드로니코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범주론』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 중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된 것도 안드로니코스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 결정은 철학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헬레니즘 시기에는 거의 논의도 되지 않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이론이 이 무렵부터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초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들은 대부분 『범주론』에 대한 것이며, 그 저자는 페리파토스 학파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심플리키오스에 따르면, 안드로니코스 자신을 포함해서, 역시 페리파토스 학파였던 보에토스(Boëthos)와 아리스톤(Aristōn), 아카데미 학파의 에우도로스

3) *Vitae Philosophorum*, 5.22ff.

(Eudoros), 스토아 학파의 아테노도로스(Athēnodōros)가 『범주론』 주석을 썼다고 한다.

주석가로서의 안드로니코스를 평가할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모두 간접적인 것이고 그 양도 극히 적다. 그는 열 개의 범주가 궁극적으로 두 개의 유로 묶인다는 입장에 동조했으며, 비실체적 속성들이 어떤 것에 대해 서술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범주론』 I-2에 나오는 ‘...에 대해 서술됨’과 ‘... 안에 있음’의 구분을 약화시켰다고 전해진다.

2. 보에토스(Boēthos)

초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들 중 후대에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보에토스였다.⁴⁾ 그에 관해 알려진 전기적 사항은 거의 없다. 그가 안드로니코스의 제자이자 후계자였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학자도 있다.⁵⁾ 현재 전해지지 않는지만 그의 저작은 줄 단위의 구절 해설이나 텍스트 평가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철학적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 하나에서 발견되는 불완전성이나 빈틈을 다른 저서들 속의 논의들로부터 보완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시간,

4)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한 말(lexis)을 분명히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테미스티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들(ennoiai)을 간결하게 밝히는 데에만 주력했던 포르퀴리오스, 특정 탐구 주제들(zētēmata)를 적당한 정도로만 다루었던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에 비해, 경탄할 만한(thausasios) 보에토스는 그것에 더 깊은 사유들(bathyterai dianoi)을 적용했다.” (Simplicius, *In Aristotelis Categorias Commentarium*, A10-18)

5) 둘의 관계에 대한 정보의 소스는 암모니오스(Ammonios)이다. 문제는 암모니오스가 『해석론』 주석에서는 안드로니코스를, 『범주론』 주석서에서는 보에토스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11번째 페리파토스 학파의 수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뒤링(Düring)은 암모니오스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능동, 수동 범주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학』, 『형이상학』에서의 논의를 끌어들이는 식이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 제기되는 페리파토스 학파 외부로부터의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특히 그의 범주 이론을 아카데미학파로부터 페리파토스 학파로 이어지는 철학사적 맥락 속에서 위치지우고자 했다. 전체적으로 그의 관심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하나의 체계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안드로니코스의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는 안드로니코스와의 견해를 달리 했다. 그는 『해석론』을 위작으로 간주하는 안드로니코스의 판단에 반대했고, 『범주론』의 마지막 여섯 장 - 소위 *postpraedica-menta*라 불리는 것 - 에 대해서도 안드로니코스과 달리 그것들이 원래 『범주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의 본성과 그것과 운동/정지 간의 관계, 그리고 『범주론』과 『형이상학』에서의 실체론에 대한 그의 놀라울 정도로 정지(精緻)한 논의들은 그가 왜 후대에 주석가로서 그렇게 높이 평가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다.

3. 아스파시오스(Aspasios)

안드로니코스의 편집본 출판으로 촉발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 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A.D.1세기에 등장한 여러 주석가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작품들에 대한 인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후대에 그리 높이 평가받지 못했던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작업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A.D. 2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이 당시의 주석가들로 아스파시오스, 아드라스토스(Adrastos), 헤르미노스(Herminos), 그리고 소시게네스(Sösigenēs) 등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두 사람은 고대 최고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로 꼽히는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다. 포르피리오스가 쓴 플로티노스의

전기에는 플로티노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아스파시오스, 아드라토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주석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들의 주석서들이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들 중 아스파시오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의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는 그 외에도 『범주론』, 『해석론』, 『자연학』, 『천체론』, 『감각론』 그리고 『형이상학』 주석을 썼다고 하나, 이 중 어떤 것도 전해지지 않는다. 아스파시오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주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고대 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현존하는 수고들보다 훨씬 오래된 텍스트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페리파토스 학파의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스파시오스의 페리파토스적 배경은 그가 종종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또한 적지 않은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대한 전통적 오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주석 속에는 언어와 내용에 있어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스파시오스의 주석 방식은 원문의 주요부분을 지칭하는 간략한 발췌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더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풀어쓰는 것이었다. 그는 상당 분량의 원문을 건너뛰고 있으며, 부주의한 실수도 자주 발견된다. 특히 이런 문제가 특히 주석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아스파시오스가 주석 작업에 싫증이 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재미있는 추측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가장 오래된 사본 전통에서조차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의 상당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사실 때문에, 그가 윤리학 전체에 대한 주석을 완료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의 주석은 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따라 가며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스파시오스가 텍스트 비판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때로 다양한 판본들의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 중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에 공통된 세 권의 책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원래는 후자에 속한 것이었고, 전자에 존재하는 틈을 보충하기 위해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그의 제자 에우데모스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4.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Alexandros)

A.D. 2세기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작업은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활약한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에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는 황제에 의해 임명된 (아마도 아테네의) 공식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교사였다(198-209). 후대에 그의 주석가로서의 권위가 어떠한가는, 훗날 아베로에스가 그 명칭을 이어받게 될 때까지 “주석가”라는 칭호가 그를 지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형이상학』(1~5권), 『분석론 전서』(1권), 『토피카』, 『감각론』, 『기상학』에 대한 주석이 전해지고 있고, 최근 『자연학』과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에 대한 주석(후자는 아랍어 번역본)이 발견되었다. 주석서 외에도 영혼, 운명, 혼합물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논문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는 헤르미노스(Herminos), 그리고 소시게네스(Sosigenes)의 제자였다고 한다. 반면 그의 제자였다고 명시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가 공인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교사였고, 후대의 주석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좀 뜻밖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알렉산드로스를 마지막으로 안드로니코스로부터 시작된 페리파토스 학파의 주석 작업 전통의 흐름은 일단 끊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석 방식에 있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스파시오스의 주석에서 보여지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그는 주어진 텍스트

를 다양한 길이의 단락들로 나누고, 그 단락들 각각에 내포된 텍스트적 난점과 철학적 문제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폭과 정교함에 있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스파시오를 훨씬 능가한다. 그의 저작들 속에는 선대 페리파토스 학파 학자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는 그의 스승이었던 헤르미노스와 소시게네스 뿐만 아니라, 보다 선대의 학자들 즉 아스파시오스나 안드로니코스, 더 나아가 에우데모스와 테오프라스토스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논의의 범위는 페리파토스 학파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아카데미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로부터의 반론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제기되어온 여러 의문들과 비판들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의 주석 작업은 그것들에 대한 철학적 대응의 일환이었다. 그는 올바른 추론의 형식에 관해서 스토아 학파의 도전에 대응했고, 보편자의 실재성에 관해서는 플라톤주의자들을 공격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보편자의 지위에 관한 그의 해석은 후에 포르퀴리오스의 『범주론』 해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렉산드로스의 주장 중 가장 유명하고 또 논란 많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과 지성 이론에 관한 그의 해석일 것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육체적 요소들의 혼합물로부터 파생된 어떤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형상을 질료에 어떤 의미로 종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곡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다. 또는 그는 『영혼론』 III-5에서 논의되는 소위 ‘능동 지성’을 개개인에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 XII에서의 ‘부동의 원동자’와 동일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부동의 원동자가 최상의 가지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들의 가지성의 원인이며, 모든 것들의 존재의 원인으로 지성의 모든 대상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부동의 원동자를 능동 지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다.

선대의 페리파토스 주석가들처럼 알렉산드로스의 목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하나의 잘 짜인 진리의 체계라는 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주로 불분명하게 표현된 부분들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 저작의 내용을 다른 저작의 내용과 연관시키면서 외견상의 불일치들을 해소함으로써 보이고자 했다.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새롭게 체계화하고 정비함으로써 그는 경쟁 학파들의 이론에 맞섰다. “주석가”라는 명칭에 걸맞게, 알렉산드로스는 전체적인 이론의 파악보다는 세부적 텍스트의 해석에 더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주석에서는 종종 다양한 대안적 해석들이 옳고 그름의 판정 없이 그대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후대의 학자들로 하여금 과연 그것들 중 어떤 것이 그의 견해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도록 만들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제시된 한 가지 해석은 그것이 그의 주석이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II. 신플라톤주의 주석 전통

1. 포르퓌리오스(Porphyrrios)

알렉산드로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신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환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플로티노스(204/5-270)의 제자였던 포르퓌리오스(232-309)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에 대한 관심은 이미 플로티노스에서 발견된다. 포르퓌리오스는 그가 쓴 플로티노스의 전기에서, 플로티노스가 그의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논할 때 아스파시오스, 알렉산드로스 등 페리파토스 학파 주석가들의 주석을 읽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티노스는 그 주석서들의 논의들을 세세히 검토하지

는 았았던 것 같다. 포르퀴리오스는 플로티노스가 그 주석들 중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다루었으며, 그것들의 핵심을 신속히 파악해 간결한 표현으로 정리하면서 또 다른 구절로 넘어 갔다고 전하고 있다.⁶⁾ 이런 구절로부터 플로티누스는 텍스트의 구절구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통찰을 추구했으며, 그러한 통찰에 도달하지 못하는 텍스트 분석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특히 그의 범주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존재의 류에 관하여(*peri tōn genōn tou ontos*)』(*Enn.* 6.1-3)는 범주이론에 대한 그의 공격을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는 부분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플로티누스의 전집을 편집하고 그의 전기까지 쓴 포르퀴리오스에 의해서 『범주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이 신플라톤주의 교육의 필수적 텍스트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포르퀴리오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을 플로티노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포르퀴리오스는 범주들이 (플로티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존재하는 것들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에 — 그 표현들이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 —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은 정말로 실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각적 대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가에 관한 이론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 되면, 범주론은 특정학과의 이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져야 할 보편적 이론이 되며, 나아가 진정한 실재에 관한 이론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는 이론이 될 수 있게 된다. 포르퀴리오스는 이러한 통찰을 구체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그 밖의 논리학 저작들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포르퀴리오스는 두 권의 『범주론』 주석을 썼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석서의

6) *Vita Plotini*, 14.14-18.

서술 형식이다. 포르퀴리오스의 주석은 알렉산드로스 등의 주석이 취했던 형식, 즉 텍스트 중심적 주석서 형식 대신 - 제목에 붙어 있는 “*kata peusin kai apokrisin*”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 텍스트의 주요 주제를 문답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Q. 이것들 중 어떤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실체인가? A. 개별자들이다. Q.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들을 어떻게 지칭하는가? A. 기체(*hypokeimenon*)에 대해 이야기되지도, 그것 안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Q. 이 표현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⁷⁾

2. 아테네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신플라톤주의의 전통에서 독창성은 전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신플라톤주의자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가 이미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의해서 파악되었고 그들의 저작들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출발점이었다. 그들의 과제는, 따라서, 망각되고 왜곡되어 온 그 철학자들과 그들의 저작들의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주석 작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함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철학함 자체였다. 이런 전통 속에서 포르퀴리오스가 한 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어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권위 있는 텍스트의 레벨로 끌어 올린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저작들 속에서 동일한 진리가 표명되고 있음을 보여야 했다. 그들의 정신을 축약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이 심플리키오스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그(= 주석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모순될 때, 텍스트의 구절(*lexis*)만을 고려해서 그 철학자들의 불일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nous*)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일치

7) *In Aristotelis Categorias Commentarium*, 88.30-35.

추적해야만 한다”⁸⁾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리 만만한 과제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들이 점점 더 정교하게 읽힐수록 플라톤과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 설명되어야 할 문제들은 늘어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들과 의견상의 충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해석들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야만 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그것들 중의 상당수가 오류와 왜곡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오류와 왜곡은 그 나름의 비옥한 철학적 토양을 만들어 냈다. 독창성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 토양 속에서 자신들의 철학적 독창성을 꽃피웠기 때문이다.

주석 작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조화시키는 일은, 내적으로는, 일자와의 합일이라는 신플라톤주의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제의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작업에는 외적인 요인이 또한 작용하게 되는데, 그 요인은 바로 기독교로부터의 공격이었다. 이 공격의 주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이교도 학파들은 상호 모순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일치성을 보이는 것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논전도 물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의 시초에 관한 필로포노스(Philoponos)와 (나는 그 *grammatikos*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던) 심플리키오스(Simplikios) 사이의 논쟁이다.

5세기 이후로 신플라톤학파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두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다. 아테네에서의 신플라톤주의는 아테네의 플루타르코스(Ploutarchos)가 학교를 위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그의 제자였던 쉬리아노스(Syrianos)를 거쳐, 그 둘로부터 배운 프로클로스(Proklos)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반면 알렉산드리아의 신플라톤주의는 헤르메이아스(Hermeias)에서 그의 아들 암모니오스(Ammonios)로 맥이 이어지고, 후자의 제자였던 필로포노

8) Simplicius, *In Categoriae Commentarium*, 7.29-32.

스,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 심플리키오스, 그리고 올림피오도로스(Olympiodoros)에서 만개하게 된다. 두 학파 간의 학문적, 이론적 차이에 관해서는, 둘 사이에 - 예를 들어 기독교화된 단일신관을 받아들였는가의 여부에 있어서 -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다는 프라이히터(Praechter)의 견해가 한 동안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는 이 견해가 과장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다수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일치에도 불구하고, 두 학파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쉬리아노스와 프로클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존재를 인정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암블리코스(Iambliko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암블리코스를 자신들의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쉬리아노스와 프로클로스는 그 주장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에 반해서 암모니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록 신적인 지성의 로고스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이긴 했지만, 실제로 플라톤적 이데아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 세계의 존재의 작용인임을 실제로 논증했다는 것을 보이는 책을 쓰기도 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두 학파 사이의 의견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테네 학파에서도 분명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졌고, 그에 대한 주석이 저술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석들이 모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 저술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직간접적인 증거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작업이 아테네 학파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일치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던 암모니오스의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3. 신플라톤주의 주석의 특징

수 세기 이상 지속된 신플라톤주의 주석 전통의 전모를 짧은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주석의 방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목할만한 점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다. 이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프로클로스의 스승이었던 쉬리아노스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 전하는 자료들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신플라톤주의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 전통에 과거 알렉산드로스가 그의 주석들에서 채택했던 텍스트 중심적 주석 방식이 다시 도입된 것은 바로 그에 의해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남겨진 자료들이 극히 불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포르퀴리오스의 경우, 『범주론』에 대해서 두 개, 그리고 『해석론』과 『소피스트적 논박』에 관해 주석을 썼다고 하지만, 이 중 우리에게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문답식) 『범주론』 주석 하나에 불과하다.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암블리코스의 경우 사정은 더 나빠서, 그가 썼다고 전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은 모두 간접적인 기록들 통해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암블리코스의 여타 주석들은 풀어쓰기(paraphrase) 방식, 즉 본문 자체의 인용 없이 그 대의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어쓰는 방식으로 쓰여졌다. 포르퀴리오스나 암블리코스, 혹은 쉬리아노스 이전의 어떤 주석자가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텍스트 중심적 주석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쉬리아노스 이후의 주석들이 그 이전의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그것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일관되게 텍스트 중심적 주석의 형태를 띠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쉬리아노스의 제자였던 프로클로스의 주석들이 그러하고, 암모니오스와 심플리키오스 주석의 대부분 역시 텍스트 중심적 주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쉬리아노스가 텍스트 중심적 주석 형식을 채

택한 최초의 신플라톤주의자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그 형식을 채택한 것이 그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의식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쉬리아노스의 선택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한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⁹⁾ 이 선택은 의식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가 『형이상학』 주석 작업을 통해 의도했던 바와 관련이 있다. 쉬리아노스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일반적 관심사,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플라톤의 그것과 근원적으로 충돌하지 않음을 보이는 일 이상을 의도했다. 즉 그는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후자를 보이는 데에는 문제 중심적 접근 보다는 텍스트 구절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주석 형식이 효율적이었을 것이고, 바로 이런 이유로 그가 텍스트 중심적 주석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적어도 쉬리아노스의 선택에 관해서는, 매력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쉬리아노스 이후의 모든 텍스트 중심적 주석에 이 설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아마도 그의 주석이후에 텍스트 중심적 주석 방식이 주도적인 것이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정교해져 간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답식 주석이나 풀어쓰기 주석은 저작에 담긴 철학자의 생각의 개요와 핵심을 전달하는데 적합한 방식이고, 텍스트 중심적 주석은 그 세부를 드러내는데 적합한 방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담긴 내용의 개요가 어느 정도 숙지된 -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는 일단 논외로 하고 -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텍스트의 디테일에 주목하는 텍스트 중심적 주석 방식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전이가 쉬리아노스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신플라톤주의 주석 전통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암모니우스 이후의 알렉산드리아 주석가들의 『범주론』 주석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형화된 서론이다. 엘리야스(Elias)의 『범주론』

9) Costa, pp.210-226.

주석에 따르면, 이 형식은 프로클로스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 서론의 큰 열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일반에 대한 10개 항목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마지막 항목은 다시 구체적 저작에 대한 여섯 내지 일곱 항목의 해설로 구성된다. 큰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 관련된 철학 학파의 이름들의 기원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의 분류 방법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학습하는 순서
4.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목적
5. 4번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6.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의 특징
7. 아리스토텔레스의 난해성의 연원
8.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가 가져야할 자질
9.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학습자가 가져야할 자질
10. 『범주론』에 대한 해설

10번 항목은 다시 다음과 같은 6~7개의 주제들로 세분된다.¹⁰⁾ 주석가에 따라 때로 항목 중의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1. 저작의 목표
2. 저작의 유용성
3.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학습에 있어서 저작의 위치
4. 저작 제목의 연원
5. 저작의 진작여부
6. 저작의 단락 구분
7.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저작이 차지하는 위치

이렇게 짝 짜인 서론의 구조처럼 신플라톤학파의 교육 프로그램

10) 이 여섯(혹은 일곱) 개의 항목이 오리게네스의 성서 주석, 특히 그의 『아가』 주석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Hadot, I., 'Les introductions aux commentaires exégétiques chez les auteurs néoplatoniciens et les auteurs chrétiens' in Tardieu(1987).

역시 엄격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체계화 과정은 암블리코스가 플라톤의 저작들 중 12개를 선별하고 그 학습 순서를 지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의 커리큘럼으로 확정되었다. (1) 포르퀴리오스의 『입문』을 포함한 예비학적 저작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논리학에서 시작해서 신학으로 종료된다), (3) 플라톤의 저작들(『알키비아데스 1』에서 시작해서 『티마이오스』, 『파르메니데스』로 종료된다). 이상의 철학적 커리큘럼과 더불어 『오르페우스 찬가들』, 『칼테아 신탁』 등의 신비주의적 저작들이 중요한 또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강의와 주석서의 연관성 역시 점차로 두드러졌다. 암모니오스 이후의 알렉산트리아 학파의 주석서들의 단락 구분은 종종 강의에서 한 시간 정도 가르쳐질 수 있는 분량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종종 두 부분, 즉 주어진 단락에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적 입장을 다루는 *protheōria*, 그리고 구체적 구절의 의미가 해설되는 *exēgēsis tēs lexeōs*로 구성되었다.

프로클로스의 제자였던 마리노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프로클로스의 하루 일과는 신플라톤주의의 커리큘럼만큼이나 체계적이었던 것 같다. 그의 하루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1. 일출: 태양을 향한 기도
2. 이른 아침: 커리큘럼에 포함된 저작들에 대한 해설
3. 늦은 아침: 저술 작업
4. 정오: 태양을 향한 기도
5. 오후: 구성원들과의 철학적 토론
6. 저녁: 저술에 의존하지 않는 수업
7. 일몰: 태양을 향한 기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과 주석서들이 (제자들에 의해) 읽히고 (프로클로스에 의해) 해설된 것은 2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의 『파르메니데스』, 『티마이오스』 주석과 『플라톤 신학』, 『신학 원론』이 저술된 것은 주로 3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신플라톤학파에서 종종 주석서는 관련 텍스트를 설명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의 강의를 들은 제자에 의해 기록되기도 했다. 암모니오스의 주석서들의 상당 부분은 그의 제자였던 아스클레피오스와 필로포노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기존의 주석의 여백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주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프로클로스가 썼다고 전해지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의 주석서는 사실 카에로에나의 플루타르코스의 작품의 여백에 프로클로스가 주들을 붙인 것이다. 또 마리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계시 때문에 직접 주석서를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던 프로클로스 대신에 자신이 쉬리아노스의 오르페우스 찬가 주석의 여백에 프로클로스의 강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한다.

기존의 주석서들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주장을 입증해야 할 동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하는 것에는 거의 영적인(spiritual) 차원까지 존재했다.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주석서는 글을 쓰는 일을 통한 영적인 수련이었다. 심플리키오스는 암블리코스의 주석서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글자 그대로 다시 자신의 주석서에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 몇몇 철학자들의 주석들 역시 읽었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암블리코스를 따르는데 더 주의를 기울였고, 종종 그 철학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옮겨 적었다. 이런 옮겨 적음의 목적은 적는 일 자체를 통해서 암블리코스가 한 말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함이었다. 또 한편으로 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의 사상의 숭고함을 더 명백하고 [일반인의 이해에]부합하도록 만들고자 했다.¹¹⁾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적는 것은 그들에게 그 자체

11) *In Categorias Commentarium*, 3.2-7.

로 하나의 명상이며, 적는 사람의 지성을 앞서 진리를 파악한 철학자들의 지성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이다.

III. 주석 전통의 확장 — 라틴 전통의 전개와 아랍 전통의 영향

1. 보에티우스(Boethius)

라틴어로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은 보에티우스(480~524)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당시에 알려져 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전부를 라틴어로 번역하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작들에 대한 번역과 그 중 『범주론』, 『해석론』에 대한 주석서였다. 그는 또한 포르퓌리오스의 『입문(Isagoge)』을 번역하고 그것에 대한 두 권의 주석서를 썼는데, 12세기 이전에는 『입문』과 『범주론』, 『해석론』의 번역만이 알려져 있었다. 사실상 이 세 권의 책 — 함께 묶여 구논리학(logica vetus)이라 불렸다 — 이 12세기에 보에티우스의 나머지 번역들이 재발견되고, 아랍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한 저작들과 주석들이 유입되기 전까지 유럽 지성계가 알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에티우스는 독창적인 주석가는 아니었다. 『범주론』 주석의 경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포르퓌리오스의 『범주론』 주석에서 빚지고 있다. 심지어 이 주석이 포르퓌리오스의 주석에 어구주석(gloss)이 첨가되어 있는 어떤 희랍어 사본을 충실히 옮긴 것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다. 흥미로운 점은 내용상 포르퓌리오스의 주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에티우스가 그 주석의 형식까지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포르퓌리오스는 문답식 주석서를 썼는데 반해, 보에티우스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텍스트 중심적

주석을 취하고 있다. 즉 그의 주석은 텍스트 중의 일부에 대한 번역이 우선 제시하고, 이어서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 구절에 대한 설명이 매우 간략하고 축약적이어서, 텍스트 중심적 주석의 장점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해석론』에 대한 보에티우스의 두 번째 주석은 훨씬 더 길고 세부적인 구절 해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는 문답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주석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이 주석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포르퀴리오스의 또 다른 『범주론』 주석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역시 전해지지 않는 암모니오스의 주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만일 소실된 포르퀴리오스의 주석이 그 모델이었다면, 포르퀴리오스는 『범주론』을 하나의 저작을 두고 상이한 목적을 위해 두 가지 형식의 주석을 의식적으로 활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답식 주석은 텍스트에 대한 보다 입문적이고 개괄적 해설을 위해, 텍스트 중심적 주석은 보다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해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2. 아랍 주석 전통과 그것의 영향

A.D. 529년은 희랍과 아랍 문명 간의 지적 교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이다. 이 해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테네의 신플라톤주의 학원을 폐쇄했다. 이에 심플리키오스와 다마스키오스를 포함한 7명의 교사는 페르시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코스로에스 왕의 환대를 받았다. A.D. 532년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간의 평화 협정에 의해서, 이주했던 학자들이 - 아마도 공적인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 로마 영토 안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몇몇 아랍과 희랍 자료들에 의하면, 그들 중 일부 학자들은 페르시아 국경 근처의 카르하이(하란)에 남아 활발한 학문 활동을 했다고 한다. 심플

리키오스가 과연 이들 중의 하나였는지는 학자들 간의 큰 논란거리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주요 주석서들은 로마가 아닌 페르시아 영토 안에서 쓰인 셈이 된다. 심플리키오스 자신이 그 주역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529년의 학자들의 이주는 페르시아 왕국 내에 희랍 문화 수용의 촉발제가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을 환대했던 코스로에스 왕에 의해 A.D. 555년에 바그다드 인근 जु디샤푸르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그곳은 희랍의 의학과 과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희랍 문헌들의 시리아어와 아랍어로의 번역 작업은 이후 역으로 유럽의 지성계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이 자극은 12~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대한 아랍 번역본들과 그것에 대한 아랍 철학자들의 주석들이 대거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부활의 서곡은 12세기 초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보에티우스의 『분석론 전서』, 『토피카』, 『소피스트적 논박』 번역의 재발견된 일이었다. 여기에 아랍으로부터 논리학 외의 여러 저작들이 유입, 번역되기 시작해, 12세기 말까지는 거의 모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일부는 희랍어로부터 일부는 아랍어 번역본으로부터)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시의 문헌들에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2세기까지는 이런 번역들이 널리 읽혔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에 주로 읽히고 논의되었던 것은 그의 논리학 저작들, 특히 새롭게 발견되어 신논리학(logica nova)이라 불렀던 저작들이었다. 결국 12세기까지도 유럽 지성계에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논리학자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과 함께 번역된 아랍 주석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도 이후의 라틴어 주석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이클 스콧(Michael Scot)이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생물학 저작들과 함께 아베로에스(1126~1198)의 『자연학』, 『천계

론』, 『영혼론』, 『형이상학』 대주석서를 아랍어로부터 번역했다. 아베로에스의 주석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소위 소주석서는 텍스트 내용의 간략한 요약, 중주석서는 텍스트 내용의 풀어쓰기, 그리고 대주석서는 텍스트 원문을 부분들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논의되겠지만,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들은 아베로에스의 대주석서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스콧의 아베로에스 주석서 번역작업은 간접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번역본을 제공하는 역할도 했다. 그의 『형이상학』 대주석서 번역 중 본문 번역 부분이 따로 발췌되어, 『형이상학』에 대한 가장 완전한 라틴어본으로 널리 읽혔던 것이다.

아퀴나스의 주석이 아베로에스의 대주석서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시 학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주석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세시대에는 고대주석전통으로부터 (아랍 주석이라는 우회로를 거쳐) 유래한 풀어쓰기 주석¹²⁾과 텍스트 중심적 주석 외에도, 일련의 문제들로 구성되는 문제-주석(question-commentary)이 존재했다. 문제-주석은 우선 *titulus quaestionis*로 제시되는 하나의 문제 – 항상 *utrum*으로 시작한다 – 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두 개의 가능한 답 중 하나에 대한 일련의 짧은 논변들이 뒤따른다. 이 논변들은 보통 궁극적으로 논박되게 될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어서 반대 입장에 대한 논변들이 제시된다. 보통 앞서의 입장에 대한 논변들보다 짧은 논변이 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논변 없이 권위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 – *ad hoc dicendum est/dico* 등의 어구로 시작한다 – 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저자의 결론이 제시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변들과 구분들이 함께 제시되게 된다.

이상의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중세의 문제-주석은 포르튀리오스의 문답식 주석과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다. 문제-주석은 고대 주석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라, 강의(*lectio*)의 뒷부분에서 행해지던

12)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주석들이 이 방식으로 쓰였다.

문제 중심적 토론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의 철학적 문헌들은 중세의 교육기관, 특히 대학에서의 수업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수업의 두 가지 주된 방식은 강의(lectio)와 토론(disputatio)이었다. 이 두 방식에 상응하는 두 종류의 글 형식이 발전하게 되는데, 주석(commentarium)과 토론 문제들(questiones disputatae)이 그것이다. 강의는 lectio라는 말의 어원이 암시하듯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위있는 텍스트를 학생들 앞에서 읽고 그것의 의미를 적절한 주석을 통해 그들에게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하나의 주석서의 내용 구성은 그 주석서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강의 속에서 설명될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주석을 예를 들어, 그것이 가르쳐졌을 강의의 구체적 모습을 복원해 보자. 주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lectio로, lectio 구분은 반드시 저작의 단락 구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선 교사는 각 lectio에 해당되는 원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이다.¹³⁾ 본격적인 주석은 divisio textus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변이 그것의 주요 부분들로 분석된다. 분석된 각 부분들에는 그것들을 이후의 논의에서 지칭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종의 표지-단어들(cue-words)이 달려 있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 주석의 divisio textus는 아베로에스의 대주석서와 대부분 일치해서, 전자에 대한 후자의 영향이 단지 주석 형식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해당 lectio의 divisio textus가 완료되면 expositio textus가 시작된다. 여기에서 divisio textus의 각 단위 부분들에 대한 해설이 제시된다. expositio는 보통 Dicit ergo primo ..., Circa primum ... 등의 전형적인 구절로 시작되며, 독자가 논변의 각 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divisio에서 사용된 표지-단어들이 반복되게 된다. 때로 새

13) 원래 아퀴나스의 주석에는 원문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어떤 라틴어 번역본을 사용했는지를 확증할 수는 없다. 현대의 판본들에는 통상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아퀴나스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라틴어본 원문을 포함시킨다.

로운 예들이 덧붙여지거나 기존의 예들이 확장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 혹은 주석가들의 말이 인용되기도 한다. 간혹 아리스토텔레스나 주석가들의 견해가 비판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 이것으로 하나의 *lectio*가 종료되나, 어떤 경우에 아퀴나스는 일반적 결론이나 요약에 덧붙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 Armstrong, A.H. (ed.), *The Cambridge History of Later Greek and Early Medieval Philosophy*, Cambridge, 1970.
- Barnes, J., ‘Roman Aristotle’ in Barnes, J. and Griffin, M. (eds.) *Philosophia Togata II: Plato and Aristotle in Rome*, Oxford, 1997, 1-69.
- Barnes, J., *Porphyry, Introduction*, Oxford, 2003.
- Blumenthal, H. & Robinson, H. (eds.), *Aristotle and the Later Traditio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 vol. (1991)
- Chadwick, H. *Boethius: The Consolations of Music, Logic, Theology, and Philosophy*, Oxford, 1981.
- Costa, C.D., ‘Commenting on Aristotle’, in Geerlings, W. & Schulze, C., (ed.) *Kommentar in Antike und Mittelalter*, Leiden, 2002, 201-51.
- De Haas, F.A.J., “Did Plotinus and Porphyry Disagree on Aristotle’s Categories?”, *Phronesis* 46, 2001, 492-526.
- De Haas, F.A.J., “Late Ancient Philosophy” in Sedley, D.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Greek and Roman Philosophy*, Cambridge, 2003, 242-270.
- Dickey, E., *Ancient Greek Scholarship*, Oxford, 2007.

- Düring, I. *Aristotle in the Ancient Biological Tradition*, Göteborg, 1957.
- Hoffmann, P. “What was Commentary in Late Antiquity? The Example of the Neoplatonic Commentators” in Gill, M.L. & Pellegrin, P. (eds.) *A Companion to Ancient Philosophy*, Oxford, 2006, 597-622.
- Kretzmann, N., Kenny, A., Pinborg, J. & Stump, 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Later Medieval Philosophy: From the Rediscovery of Aristotle to the Disintegration of Scholasticism*, Cambridge, 1988.
- Morau, P. *Der Aristotelismus bei den Griechen*, Berlin, 1973, 1984.
- Sedley, D., “Plato’s Auctoritas and the Rebirth of the Commentary Tradition” in Barnes, J. and Griffin, M. (ed.) *Philosophia Togata II: Plato and Aristotle in Rome*, Oxford, 1997, 110-129.
- Simplicius, *Commentaire sur les Catégories* (trans. directed by Hadot, I.), Leiden, 1990.
- Sorabji, R. (ed.), *Aristotle Transformed: The Ancient Commentators and Their Influence*, Ithaca, 1990.
- Sorabji, R. (ed.), *The Philosophy of the Commentators, 200-600 AD: A Sourcebook* (3 vols.), Ithaca, 2005.
- Spade, P.V., (ed.) *Five Texts on the Mediaeval Problem of Universals*, Indianapolis, 1994.
- Tardieu, M., *Les Règles de l’interprétation*, Paris, 1987.

ABSTRACT

Commenting on Aristotle:
A Brief Historical Survey

Chun, Hun-sang

This article surveys the main trends in the history of the commentaries on Aristotle's works from 1C B.C. to 13C A.D.. Most of the commentators from 1C B.C. to 3C A.D. were Peripatetics. Andronicus, the editor of the first Aristotelian Corpus, broke ground, and was followed by Boethius in 1C B.C., Aspasius in 2C A.D., and Alexander in 3C A.D. After Alexander, however, the peripatetic tradition suddenly declined and the Neoplatonic tradition took over. The latter was initiated by the commentaries of Porphyry and dominated Aristotelian scholarship until 6C A.D. The so-called Athenian school and the Alexandrian school produced commentaries with distinctive features of the respective groups, the first of which included Syrianus and Proclus; and the second Ammonius, Philoponus, and Simplicius among others. In the Neoplatonic tradition the aristotelian commentaries became a part of the systematic curriculum of Neoplatonism, and as a result, the commentaries themselves exhibited a highly systematic character. Neoplatonic commentaries were a fertile soil in which the originality of Neoplatonists blossomed, and sometimes it had a spiritual dimension. The Latin tradition, on the other hand, began with Boethius. But it was not until 12C A.D. when the Arabic translations of Aristotle's works and commentaries on his works

were imported into the Europe on a large scale that the tradition was fully vitalized. The influence of the Arabic tradition on the Latin tradition both in its form and content is quite noticeable, for instance, in Aquinas' commentaries.

Keywords: Aristotle, Commentary, Peripatetic, Neoplatonism, Latin Tradition